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9 772234 103000 09>
ISSN 2234-103X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NOVEMBER / DECEMBER 2020
통합의료원보 VOL. 62 11/12

Essay

상실이라는 마음의 대지에 푸르른 씨앗을

글_백승주

이제 시간은 가을을 지나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엄동설한도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가을이라는 안식과 포근함이 아니라 마치 빙하기를 앞둔 것 같은 상실과 아픔의 시간과 마주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웃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썼던 한 개그우먼과 그녀의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과 부고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도 그 깊은 상실과 공명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해를 넘기고 있고요. 계절의 빙하기가 아닌 감정의 마음의 빙하기는 지난 겨울부터 우리에게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몰았을 뿐이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시간과 앞으로 자주 우리는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천향 가족 모두에게 코로나의 여정에 잠시 멈추어 상실이라는 마음의 대지에 푸르른 씨앗을 심어낼 수 있는 '옹달샘'을 선물합니다.

옹달샘

글_박영신

그리운 옹달샘은
깊고 깊은 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마음 밭에도 있다.

신나던 어린 시절
옹달샘에 던져 본
작은 돌멩이 하나

물결은 물결을 낳고
파동은 파동이 되어
거울 같은 옹달샘에 퍼져 나갔다.

불현듯 다시 찾은
고향의 옹달샘에
고요히 던져보는 작은 질문들

울림은 울림을 부르고
바람은 바람을 일으키리니
맑디맑은 옹달샘에 마른 목을 축이다.

표지설명
한 해를 보내며 코로나로 인한 상실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환우들께 순천향의 따뜻한 사랑을 온 세상 곳곳에 전해드리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순천향

2020.11+12
Vol. 62 통합의료원보

CONTENTS

2	SPECIAL	송년특집_인간사랑 실천
8	HISTORY	'서석조SCH플랫폼'
10	SYMPOSIUM	메이요심포지엄
12	LOVE	비만수술로 되찾은 여배우 김지안 씨
14	DOCTOR	부천병원 박성규 교수
18	VISIT	천안병원 호흡기내과
22	WITH	김형규 변호사
24	ISSUE	서울병원, 드라이브인·워킹 스루 호응
26	ISSUE	부천병원-APEC 규제조화센터, 의료기기 전문 교육 공동 개최
28	ISSUE	천안병원, 정부 '수면산업 지원 사업' 참여
30	ISSUE	구미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32	KNOWLEDGE	세스트린, 자궁내막암세포 증식과 전이 억제 밝혀
34	KNOWLEDGE	'반측 안면경련'
36	KNOWLEDGE	발목관절염
38	KNOWLEDGE	당뇨병 관리 요령
40	EQUIPMENT	구미병원, 최첨단 검사실 자동화시스템
42	ALUMNUS	김재훈 4월31일 성형외과 원장(순천향 의과대 5회)
44	NEWS	

「순천향」 통권62호

발행일 2020년 11월 16일 **발행인**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종, 한세형, 이상원, 유채민
연락처 02-709-9293 www.schmc.ac.kr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59 **기획·편집·디자인** 피앤플러스 02-2269-5689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순천향의 따뜻한 사랑을 세상 곳곳에 전합니다!

인간사랑을 실천하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서울병원, 부천병원, 천안병원, 구미병원)은 설립이념인 '하늘뜻 받들어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순천향 정신을 이어받아 의료의 보편적가치인 세상 어느 누구나 차별 없는 따뜻한 진료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아낌없이 나눔과 봉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병원은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따뜻하게 인간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 순천향나눔회의 후원을 받은 베트남 불법체류 환자
▼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은 우즈벡키스탄 소녀 모습

서울병원

인간사랑 실천하는 '순천향나눔회'
소외된 외국인,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에 의료후원금 지급

태국인 칸프롬 사바락(Kanprom Savalak 33세. 여)씨는 올 해 1월 타 병원에서 폐암 4기에 뇌 전이 진단을 받았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치료비 감당이 어려워 귀국을 결심했다. 하지만 출국 당일 갑작스러운 컨디션 저하와 열, 호흡곤란 등으로 공항에서 탑승을 거부당하고 주한 태국 대사관을 통해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입원했다.

태국에서 홀로 7살 아들과 부모, 남동생을 부양하던 사바락은 동생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왔다. 식품공장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동생 치료비와 어린 자녀 양육비, 노쇠한 부모님 생활비를 보조했다. 월급에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송금하다보니 본인은 월 40만원으로 궁핍한 생활을 이어왔다. 건강악화로 직장도 퇴사해 소득은 전혀 없고, 눈덩이처럼 쌓여버린 치료비를 도와줄 가족도 없는 망막한 상황에 한 줄기 희망이 생겼다.

'순천향나눔회'의 손길이 닿은 것이다. 환자의 사연을 접한 '순천향나눔회'는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350만원의 치료비를 후원했다. 돈과 건강을 모두 잃고 한국을 떠나려던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을 준 것이다.

'순천향나눔회'는 올 해 사바락과 같은 외국인을 비롯해 총 75명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 복막염 치료를 받은 조선족 동포, 뇌 내출혈로 응급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은 중국인,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대학생, 난민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난민피난처에서 생활하다가 망막병리로 치료를 받은 에티오피아 여성, 자궁근종 수술을 받은 필리핀 불법 체류자, 이집트 국적의 어린이도 지원했다. 2014년부터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미화부로 일 해 온 직원 환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도 인간사랑을 전했다. 이 환자 역시 월급의 대부분을 부채를 갚느라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리의 대퇴혈종이 생겼다. 설상가상으로 수술 중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T-세포림프종이 발견돼 현재 항암치료 중이다. 첫 번째 남편은 임신 중 사망하여 혼자 아들을 키웠다. 노점상, 식당일 등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다가 두 번째 남자를 만나 딸을 낳았다. 하지만 두 번째 남자와도 헤어져 두 아이를 홀로 키웠다. 어렵게 키운 아들은 연락두절 상태고 무직 상태인 딸과 어렵게 살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다.

송지영 사회사업팀장은 "돈과 건강 모든 것을 잃고 한국을 등지려던 소외된 외국인을 비롯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아이, 독거노인, 수급자, 차 상위 등의 불우 환자를 위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나눔회'는 360여명의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교직원들이 매월 소정의 급여공제를 통해 기금을 조성한다. 간호사협의회, 간호조무사협의회의 정기후원과 개인후원, 바자회 수익금도 나눔회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 해는 10월말 현재까지 8천1백만원을 자선의료후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상우 '순천향나눔회' 회장은 "더 많은 교직원들이 참여해서 기금도 늘리고, 외부후원도 적극 유치해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인간 사랑의 순천향 정신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순천향나눔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부천병원

◀ 따뜻하게 환자와 보호자를 돌봐 기부를 끌어낸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김범태 교수
▶ 김범태 교수와 환자의 기부 사연을 접하고, 또 다른 나눔을 실천한 순천향대 부천병원 하종호 신경외과 전공의·홍슬기 별관 중환자실 간호사 부부

김범태 신경외과 교수의 '선행 나비효과', 나누면 커진다
감동한 보호자와 병원 직원 부부, 저소득 환자 의료비 기부 릴레이

많은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냉철한 판단을 내리며 응급 수술을 집도하는 신경외과 의사는 차갑게만 그려진다. 하지만 현실에선 환자를 아들처럼 돌봐 얼어있던 보호자의 마음을 녹이고 기부를 끌어내는 따뜻한 신경외과 의사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김범태 교수다. 김 교수는 지난해 9월 뇌출혈로 쓰러진 오 씨(남, 37)를 수술하고 수시로 회진을 돌며 상태를 살피고, 오 씨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 용기와 희망을 줬다. 이미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모야모야병으로 한 차례 큰 수술을 받아 마음고생을 했던 오 씨 어머니는 김 교수의 말 한마디와 미소가 큰 힘이 됐다. 오 씨 어머니는 아들을 정성껏 돌봐준 김범태 교수님께 보답할 길을 찾다가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500만 원을 기부했다.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 아들처럼 젊은 나이에 병에 걸린 환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기부 계기를 밝혔다. 오 씨가 기부한 의료 후원비 500만 원은 2명의 30대 모야모야병 환자에게 각각 250만 원씩 전달됐다. 두 환자는 8월 중순에 김범태 교수에게 뇌혈관 수술을 받았다.

두 환자 중 김 씨(여, 30)의 사연도 특별하다. 김 씨의 어머니가 지난 7월 김범태 교수에게 대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김범태 교수는 어머니를 병문안 온 김 씨가 손에 힘이 없어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는 얘기를 듣고 검사를 권유했다. 검사 결과, 모야모야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긴급 수술을 진행했다. 환자 김 씨는 "김범태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모야모야병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자칫 목숨을 잃을 뻔했다. 환자와 보호자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병도 발견하고, 의료비 후원까지 연결해주신 따뜻한 의사 선생님이시다. 김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의료비를 후원해주신 분께도 감사드리며, 저 또한 건강을 되찾으면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행 나비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하종호 신경외과 전공의와 홍슬기 별관 중환자실 간호사가 10월 결혼을 앞두고 의미 있는 일을 찾다가 김범태 교수와 환자 오 씨의 기부 사연을 듣고, 저소득 환아 치료에 써달라며 200만 원을 병원에 기부했다.

홍슬기 간호사는 "질병 앞에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배우지만, 병원에 근무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았다. 김범태 교수님 환자의 기부 사연을 접하고, 남편과 결혼을 기념하여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함께 사는 삶을 살자'는 의미로 기부를 결정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 다른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범태 교수는 "'내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라면?'이라는 생각으로 환자와 보호자를 살뜰히 챙겼을 뿐이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고 가족과 사회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정신없이 돌아가는 의료 현장에서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비법을 밝혔다.

천안병원

▲ 뇌경색 불우환자를 수술 치료한 신경외과 오혁진 교수(왼쪽)
◀ 여중생의 사시를 수술 치료한 안과 김소영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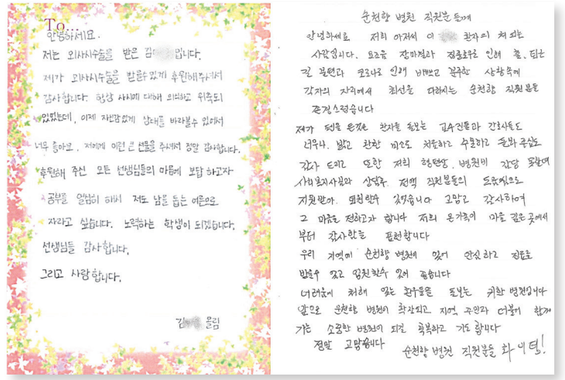
교직원들의 강물 같은 사랑이야기
교직원들 자발적 성금으로 400여명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천안병원 교직원들은 오랫동안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9년째 이어온 의료비 지원은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돼온 것이라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 교직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성금을 모은다. 그간의 성금은 총 3억 원에 달하며, 400여명의 불우환자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었다.

9년째 이어온 의료비 지원

천안병원 교직원들의 사랑을 실은 성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한사랑나눔기금'으로 들어간다. 지원 환자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일용직 근로자 등 다양하다. 올해 9월까지 모아진 성금은 총 2천7백만원이며, 20명의 환자가 교직원들의 성금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

사랑의 메아리



▲ 천안병원의 사랑을 선물 받은 환자들의 감사편지

천안병원 교직원들의 사랑은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잇따라 날아드는 감사편지들. 아산시에 사는 이 모씨는(남, 60세) 희귀난치질환을 앓다가 뇌경색증이 찾아왔다. 3년 전부터는 파킨슨병까지 앓게 되었다. 게다가 가족들마저 이 씨를 간병하느라 생업에 집중하지 못해 가뜩이나 어려웠던 가정형편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었다. 사회사업실을 통해 딱한 사정을 접한 천안병원은 치료비 전액 지원에 나섰다. 이 씨는 천안병원 신경외과 오혁진 교수로부터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잘 회복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큰 도움을 준 천안병원에 이 씨와 가족들은 편지로 감사를 전해왔다. 한 여중생의 편지도 눈길을 끈다. 천안시에 사는 김 모 학생(여, 14세)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한다. 심한 간헐성 외사시로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병원비 걱정에 수술을 엄두도 내지 못하던 김 양에게도 천안병원은 사랑을 전했다. 소아사시 권위자인 안과 김소영 교수로부터 수술 치료를 받은 김양은 정상 눈을 선물 받았다. 김 양은 감사편지를 통해 "사시 때문에 창피해 다른 사람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상대를 바라볼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열심히 공부해 나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어른이 되겠다"고 말했다.

사랑은 강물처럼 흐른다

천안병원은 오래전부터 불우환자 치료비 지원 모범병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다양한 의료비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후원재단 및 여러 단체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치료비 지원을 극대화 하고 있다. 또 교직원들은 의료비 성금 모으기 외에도 간호부, 사무처, 의료기사연합회 등은 직역별로 매년 다양한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따로 펼침으로써 순천향 정신 '인간사랑'을 이중삼중 실천하고 있다. 이문수 병원장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병원'을 지향한다"면서, "교직원들의 사랑이 지역사회 가장 낮은 곳까지 끊임없이 흐를 수 있도록 병원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구미병원

▲ 보건의료복지 301네트워크 지원사업 협약식

▼ 구미시에 500만원 기탁, 병원장님과 장세용 구미시장님

보건의료복지301네트워크 , 햇살아이 지원센터 등 사랑실천
취약계층 및 의료사각지대 환자들에 의료비 지원

구미병원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2020년 3회 연속으로 취약계층 건강권 수호 지원사업인 '보건의료복지 301 네트워크' 지원 사업 대상병원으로 선정되었다. '보건의료복지 301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보건, 의료, 복지의 3가지 영역을 하나로 통합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된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를 통해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 후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전환하여 원활한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미병원은 보건, 의료, 복지의 통합적 접근으로 저소득 계층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2018년 10월~12월에 11명에게 일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 65명과 2020년도 50여명의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자들을 발굴하여 매년 의료비 일억원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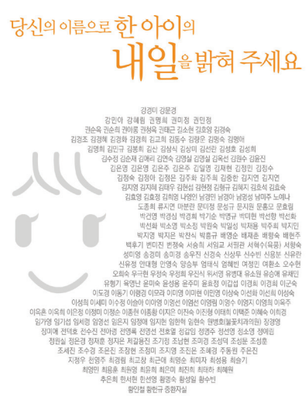
'보건의료복지 301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입원, 외래치료비 ▲검사비 ▲간병비 ▲보조기 등을 폭 넓게 등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 2020년, 아동 40여명에게 225건 지원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대표:김태우 내과계 진료부장)는 2007년에 설립되어 보이지 않는 폭력, 잘 들어나지 않는 정서학대와 방임의 심각성에 관심을 갖고, 부모로부터 소외된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발굴하여 통합적 아동보호체계를 통하여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햇살아이지원센터는 정부 지원금 없이 구미병원 교직원과 뜻을 함께 하는 후원자 250여명의 기금으로 아동과 가정을 돕고 있으며, 위기아동에게 ONE-STOP 통합지원체계로 언어치료,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 찾아가는 가정방문, 지역사회 연계 및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70여명의 아동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 지원받은 아동은 50여명으로 약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2020년 1월 ~ 10월 지원받은 아동은 40여명으로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는 사업을 통해 정서학대의 새로운 인식을 전환하게끔 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취약계층의 조기발견 및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미래 세대의 따뜻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500여명의 교직원 매월 급여공제를 통한 복지기금 후원 동참

구미병원은 어려운 이웃들과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전달하기 위해 순천향 복지기금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사랑 나눔 바자회, 아나바다 운동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순천향 복지기금으로 전달하고, 교직원들이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구미시에 기탁하는 등, 매월 500명 이상의 교직원들이 후원에 동참하여 따뜻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미MJF라이온스클럽, 구미고아라이온스클럽 등 매년 각계각층에서 후원금을 모금하여 취약계층 아동과 환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 10월, 5명의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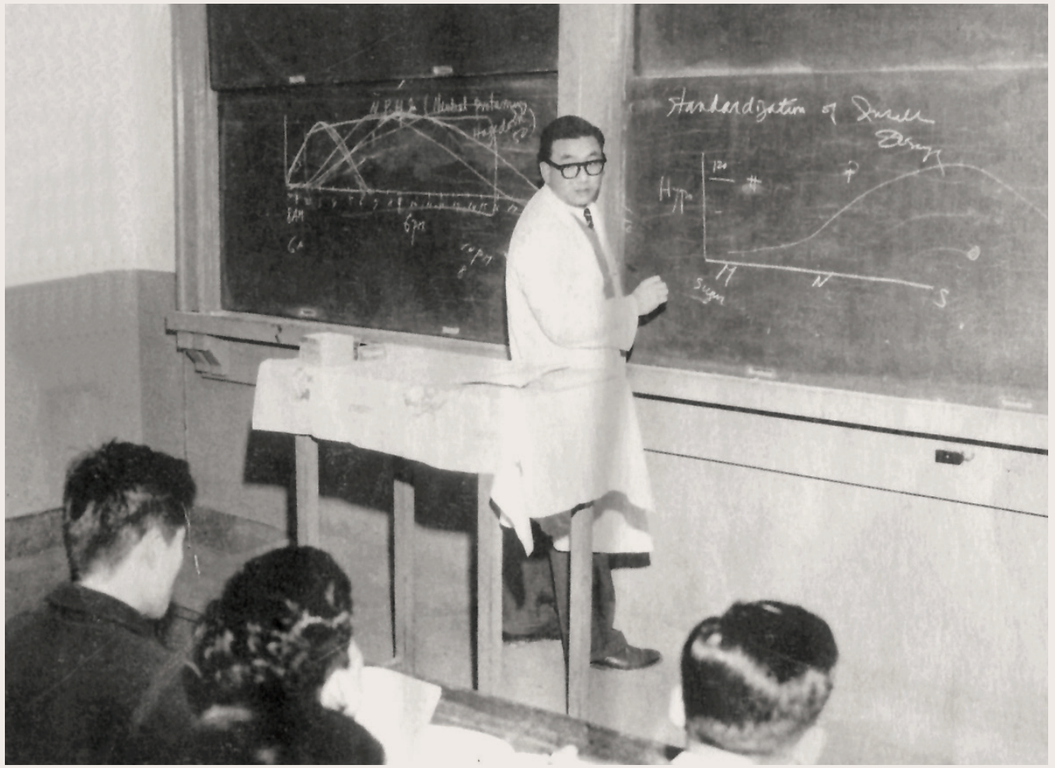


[사고(社告)]

‘서석조SCH플랫폼’의 재발견

‘서석조SCH플랫폼’이 이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순천향대병원·순천향대학교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의 서거 20주기와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의학 발전의 위대한 업적인 병원·대학·의학연구의 통합 시스템 구현의 토대인 ‘서석조SCH플랫폼’의 재발견과 이를 기념하고 후학들에게 표상이 되고자 향설박사의 일대기를 연재합니다.

세브란스를 들썩이게 한 ‘명 강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세브란스의대에서 강의를 하는 모습. 명 강의로 소문이 자자해서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았다.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강의

세브란스의대에서 강의를 시작하던 시절, 서 박사는 30대 후반의 잘생긴 외모에 갓 미국에서 돌아온 젠틀한 ‘뉴요커’이미지로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았다. 무엇보다 어려운 신경학 강의를 너무나 쉽고 명료하게 하는 모습에 학생들은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대학의 수업 풍경이라고 하면 완전한 주입식 교육이었다. 교수들이 낡은 강의 노트를 갖고 불러주듯이 강의를 하면 학생들은 받아쓰기에 정신이 없었다. 말이라도 빠른 교수를 만나면 도저히 받아 적을 수가 없어 난감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 박사의 강의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다. 특별한 강의 노트도 없이 강의를 진행하는데도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 비결은 강의를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실습도 실제를 들어가며 하기 때문에 인기가 대단했다

신경 반사작용에 대한 강의를 하면 그 자리에서 실습을 하는데 환자 대신 학생을 한명 불러놓고 신경 테스트는 이렇게 하는 거라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직접 학생이 환자가 되어 누우면 신체 곳곳을 눌러 가면서 신경 반사작용을 실제로 체험하게 했다. 당시 학생들은 신경 반사에 대해서도 무릎을 중심으로 5~6가지 정도 밖에 몰랐는데 서 박사로부터 신체 곳곳에 있는 40여 가지의 신경 반사에 대해서 듣고 깜짝 놀랐다.

신경 반사작용을 위해 동료들의 신체 곳곳을 누르다보면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엉뚱하게도 배를 주물럭거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어김없이 서 박사의 농담이 튀어 나와 강의실을 웃음바다로 만들곤 했다.

“지금 안수기도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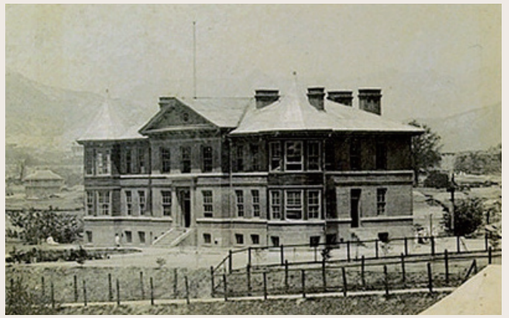
그 강의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서 박사로부터 의학을 배운 교수들은 40~50년이 지난 후에도 의학도 시절의 강의장 풍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임상병리토론회, CPC 실시

서 박사는 미국 밸뷰병원에서 실행했던 CPC(clinico-pathological conference), 즉 임상병리검토회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처음 도입해 활용했다. CPC는 임상경과와 치료내용 외에 병리해부를 통해 진단이 타당한가를 검토하는 회의이다. 즉, 임상소견 및 병리소견을 종합적으로 토의함으로써 각종 질환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을 갖도록 임상병리 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당시만 해도 병원에서는 무척 생소한 방법이었고 의학계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정도였다.

학생들이 서 박사에게 홀딱 반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올 때 환자 진찰하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프린트해서 일일이 나누어 주었다. 문진하고 그 다음 과거 병력 쓰고 진찰 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기록 해 놓은 중요한 책이었다. 학생들로서는 어디서 구경도 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었다.

서 박사는 세브란스의대뿐만 아니라 옮기는 곳마다 명 강의로 이름을 날렸지만 그저 강의를 잘하는 교수는 아니었다. 그는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과 태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정한 스승이었다. 제자들이 스승을 존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보다 앞서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 서 박사의 생각이었다.



세브란스씨가 기부한 병원 설립 기금으로, 1904년 남대문 밖 복숭아골에 세운 세브란스 병원. 현재 서울역 맞은 편 세브란스 빌딩자리.

‘함께 품고 가는 순천향’, 한남동에서 윌리엄과 찰스를 만나다

순천향대서울병원, 환자 중심 병원 위한 심포지엄

순천향대서울병원은 10월 14일 ‘함께 품고 가는 순천향, 한남동에서 윌리엄과 찰스를 만나다’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974년 향설 서석조 박사가 순천향병원을 설립 할 당시 환자중심 병원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메이요클리닉을 롤 모델로 삼았던 뜻을 기리고 오늘날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 진료와 행정, 연구 등 모든 분야에서 더 나은 병원이 되도록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영상으로 제작한 메이요클리닉 설립자인 윌리엄과 찰스의 ‘140년을 잇는 환자중심 병원’을 시작으로 ▲환자제일-환자가 중심이다(방덕원 환자경험실장·심장내과교수) ▲진료-다학제 탑팀은 어떨까요?(김태형 미래전략실장·감염내과 교수) ▲행정-소통 참여 시스템이 조직의 핵심이다(신종준 미래전략팀장) ▲연구-2030 연구 비전 순천향을 위하여(양현종 데이터혁신실장·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4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강가에서(향설 서석조 박사)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 격려사

“설립자께서 생각하셨던 롤 모델인 메이요클리닉의 환자 제일주의를 배우고 확산하기 위한 소중한 노력에 감사드린다. 심포지엄을 계기로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진정한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방덕원 환자경험실장

“메이요클리닉은 순천향이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인간미를 중시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지 않는 어떤 조직과도 사업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또한 뛰어난 개인보다는 튼튼한 팀플레이를 중시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항상 빠르게 대응하는 곳이 메이요 클리닉”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형 미래전략실장

“알고리즘이 있는 예약 시스템과 경계를 허무는 환자 중심의 통합진료가 중요하다”며 “우리도 인간사랑 순천향의 협업 정신으로 모든 교직원이 함께 노력해서 우리병원이 어려운 문제를 가진 환자들이 찾아오고 싶은 목적지 병원이 되자.”고 당부했다.

신종준 미래전략팀장

“순천향은 환자와 직원의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고, 최상의 진료, 혁신적 연구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메이요클리닉과 같이 “환자를 위함에 있어서 교직원의 작은 의견도 존중되어야하고, 병원은 항상 가치관에 부합하는 직원을 신중하게 채용해야 하며, 교직원들은 모두가 어려운 일에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솔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양현종 데이터혁신실장

메이요클리닉의 연구지원 현황과 순천향대서울병원의 현재 연구현황을 소개하고 “논문은 교수 개인이 써야하는 개인적인 업무로 논문 자체에 투자 보다는 젊은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또한 논문을 위한 연구가 아닌 환자 중심 연구를 육성해야 하며, 순천향의 가치관을 반영한 2030 육성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핵심 우선 순위 분야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우 김지안 씨,
비만수술로 되찾은 여배우의 삶

흔히 비만은 질병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기관리의 소홀함과 게으름의 산물로 취급하며 따가운 사회적 시선은 환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비만이 가져다주는 외모적인 스트레스로 상상 이상의 고통을 받는다. 화려한 삶을 꿈꾸던 한 여배우 역시 비만이라는 질병으로 어두운 인생을 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비만수술을 통해 다시금 여배우로서의 행복한 삶을 되찾은 김지안 씨를 만났다.

글_전진용 사진_박미희

미술과 연기 등 다방면에 재능이 많았던 김지안 씨(38세)는 2017년부터 연기자의 길에 들어섰다. 연기가 전공이었기에 몇몇 단역들을 맡으면서 순조롭게 여배우로서의 삶이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무렵 찾아온 것이 바로 '비만'이다. 불규칙적인 식생활과 인스턴트 위주의 식습관으로 살찌기와 살빼기를 반복했다. 60kg와 90kg을 오가던 몸무게는 2018년에 급기야 99.9kg까지 올라갔다. 심각함을 느끼고 10년 이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을 다니던 어머니의 권유로 고도비만수술센터를 방문했다.

"몸무게가 크게 늘면서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등도 함께 진단받았어요., 김상현 교수(고도비만수술센터장)님의 권유로 비만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김 씨를 진료했던 김상현 교수는 "무엇보다 환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두웠고 우울해 보였다"며 당시를 회상한다.

"지안 씨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음에도 살찐 외모와 체형으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커 보였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비만과 관련된 다른 합병증보다 제일 심각한 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이거든요."

일본에서 연수를 마치고 갓 순천향대서울병원의 고도비만수술센터장으로 일하게 된 김 교수에게 김 씨는 매우 각별한 환자였다.

지난해 3월 고도비만수술이 이루어졌다. 위의 80% 이상을 절제하여 남은 위의 용적을 150cc크기로 줄여서 음식물의 섭취를 제한하는 수술이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수술 후 첫 일주일간 잠을 못 이루는 등 심리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김 교수의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관리에 김 씨의 마음도 안정을 되찾았다. 수술의 경과 역시 좋았다. 하지만 또 하나의 고비가 찾아왔다.

"식단조절과 운동 등으로 관리를 했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살이 빠지지 않더라구요. 심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김 교수는 "비만수술의 경우 일정수준의 감량 후 정체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때 자칫하면 환자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감량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담당의의 세심한 관리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심리 상담과 약물치료 등을 통해 이 어려움 역시 이겨냈다

비만수술로 되찾은 건강, 되찾은 배역

수술 후 1년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현재 김 씨의 몸무게는 59kg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수술 후 원래 몸무게의 30% 수준 감량이 이루어지지만 김 씨는 40%를 감량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비만으로 자살까지 생각해 본적도 있었어요. 여배우로서 배역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도 만날 수 없는 나날들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삶으로 돌아왔다. 아름다웠던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고 이제 드라마 배역도 따냈다.

"곧 드라마에 출연할 예정 이예요. 교수님은 좀 걱정하시지만 한 5kg 정도 더 감량하려구요. 그 다음에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생각 이예요."

김 교수는 김 씨에 대해 "아주 고마운 환자"라며 웃었다.

"순천향이라는 새로운 병원에 와서 인연을 맺은 초창기 환자이기도 하고 저에게 매우 좋은 결과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환자와 의사 이상의 애틋함이 있거든요. 미모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신경을 쓰며 관리해 주길 바랍니다."

김 씨는 여전히 하루 한 끼를 단백질 파우더로 대신하고 틈틈이 등산과 운동으로 건강한 체중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한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김 교수의 상담과 관리를 받는다.

김 교수는 "비만수술은 무엇보다 수술 후의 관리가 중요하며 그렇지 못하면 체중감량에 다시금 실패할 수도 있다"며 "김 씨와 같이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이 있다면 앞으로는 큰 걱정 없이 아름다운 여배우로서의 즐거운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죽음까지 생각했던 저의 삶을 이제는 하루하루를 기대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준 김 교수에게 감사하다는 말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삶을 얻은 만큼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훌륭한 배우로서의 모습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성규

부천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대한민국 골수이식 분야 선구자

"삶의 행복을 영위하되, 의사로서는 미쳐라"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 분야의 선구자가 있게 마련이다. 선구자라 불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많은 경험과 고뇌, 자기성찰들이 뒤따른다. 부천병원 종양혈액내과의 선구자라 불리우는 박성규 교수의 길 또한 비슷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또한 행복한 여정이기도 했던 박 교수의 지난 삶을 통해 진정한 선구자, 진정한 명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글_전진용 사진_박미희

수학을 잘하던 한 학생은 물리학자, 기계공학자 등을 꿈꾸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는 훗날 꿈과는 사뭇 다른 의사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그것도 '명의'라 불리우는 위치에 올랐다. 바로 박성규 부천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의 이야기다.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물리학과를 지원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의대였어요."

박 교수는 물리학과 낙방 후 들어간 의대에서 그저 현실에 충실한 모범생 중 한명이었다. 생각 외로 의학 분야 공부는 재미있었다. 평범한 의대 모범생으로 적응해 나갔다. 2대 독자였던 박 교수는 당시 6개월 방위 복무가 가능했다. 의과 예대 2년과 방위 복무를 마치고 남는 6개월이라는 시간은 박 교수에게 인생의 한 전환점이 된 시간이었다. 그 기간 고향인 충남에서 야학을 했다. 한 성냥공장에서 만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인생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회상한다.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려운 사람들과 공감하고 공유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봉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성찰도 그때였어요."

이 시절이 박 교수의 인생을 바꿔게 한 첫 번째 계기였다.

넓은 세상속에서, 행복의 의미를 찾다

조금은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 의대 모범생으로 돌아온 그에게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가 생겼다. 인턴 후 전공 선택을 앞두고 응급실 선배를 도와야 하는 일이 생겼다. 그 과정에서 여러 수술을 접할 수 있었다. 박 교수를 유심히 살펴보던 선배의 반응은 "너 손재주가 많구나!"였다.

일반외과는 왠지 손재주에 비해 성에 차지 않았고, 정형외과는 마치 목공소 같이 느껴졌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신경외과였다. 적성을 찾은 박 교수에게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당시 성적도 우수했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떨어졌습니다.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말이죠. 소위 말해 낙하산이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졌더라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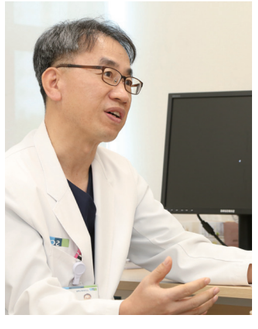
낙심은 컸다. 이 일로 박 교수는 순천향을 떠나 취업의 길을 선택했다. 마음속으로 "다시는 순천향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외치기도 했다. 취업이 된 병원은 규모를 갖춘 개인병원이었다. 그 곳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분야가 내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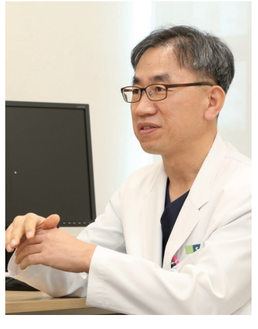
"봉직의로 일하며 수련의처럼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내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았던 거 같습니다."

이곳에서 6개월의 봉직의 기간을 마치고 갑작스레 유럽여행을 결심하게 된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잊지 못한 경험 중 하나였어요."

세상은 너무도 넓었고, 처음 접하는 것이 너무도 많았다. 여러





연구 분야 있어서도 순천향대학병원이 더 높은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 활동과 후배양성에 힘을 기울 일 생각"이라며 "뛰어난 후배들이 많은 만큼 더욱 발전된 시스템 구축은 물론 연구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경험을 했다.

"남들이 많이 가보지 않을 곳을 가봐"라는 선배의 조언에 선택한 첫 번째 새로운 여행지는 '하이랜드'라 불리우는 스코틀랜드 북부지역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한 곳은 오스트리아였다. 그 곳에서 또 한 번의 인연을 만났다. 간호사로 독일에 파견을 갔다가 독일인 의사와 결혼해 현재는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한국여성이었다.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구요. 의사인 남편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니 밑에서 1년 정도 일하면 이곳에서 의사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저한테는 놓치기 아쉬운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는 결국 놓치고 말았다. 2대 독자 귀한 아들을 어머니가 먼 타지에 내버려두기 만무했다.

"좋은 기회는 놓쳤지만 그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새롭게 느끼게 됐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 놓은 두 번째 계기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는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할 뿐이었다.

유럽의 사람들은 삶이 여유로웠으며 가족과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 걸음걸이조차 느렸다. 휴가가 3개월째라는 믿을 수 없는 말까지 들었다.

"우리나라는 행복을 위해 지금의 순간을 참고 살아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는 것이죠. 하지만 유럽인들은 이 순간의 여유와 행복을 느끼고 살더라구요. 제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도 달라졌습니다."

박 교수는 결심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에게 매 순간 보상해 주며 지내겠노라고.

"의사는 미친놈 소릴 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3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귀국한 박 교수에게 3가지 진로가 놓여졌다. 순천향에 남아서 교수가 되는 것과 개원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가 지금은 은퇴하신 박희숙 은사님이 추천한 서울성모병원 근무였다.

"사실 가장 힘든 자리가 서울성모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었지만 은사님의 말씀은 그 당시 하늘과 같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성모병원 행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골수이식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다. 서울성모병원은 국내에서 이 분야 최고로 평가받았다. 환자는 넘쳐났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투석실 침대에서 자고,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했습니다. 토요일 집에 갔다 일요일에 다시 복귀하는 생활을 1년 동안 했거든요. 골수이식 분야 최고였던 성모병원이었지만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제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하던 어느 날 한 교수로부터 호출을 받는다.

바로 우리나라 골수이식 분야의 선구자인 서울성모병원의 김춘추 교수였다. 자신의 눈에 들어 온 박 교수에게 김 교수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골수이식 연구를 위해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지내면서 기초 연구에 전념하며, 부족한 연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을 빼서 연구용 돼지를 사는 등의 기행을 하기도 했던 과거를 들었다. 하지만 그런 말보다 지금도 박 교수의 귓가에 남은 말은 "미친놈 소릴 들을 정도가 되어야 순천향병원에 들어가서도 골수이식을 맡아 잘할 수 있어"였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김춘추 교수가 박 교수에게 한마디를 건넸다. "야! 너 미쳐가는거 같다" 그리고는 "순천향으로 돌아간 후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시 집이라도 빼서 도와줄게"라며 격려했다.

골수이식 시스템 기틀 마련…"주인의식을 가져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순천향이지만, 박 교수에게 순천향은 모교이자 고향이었다. 먼저 서울병원으로 복귀해 1~2년간 골수이식을 위한 세팅을 하고 지금의 부천병원으로 왔다. 골수이식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보완이 필요했다.

"사실 대학병원도 수익문제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골수이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설보완이나 인원확충 등의 문제가 불가피했거든요. 그러기에 병원과의 마찰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2002년에는 사표를 쓸 정도로 기존 시스템 및 경영진과 날을 세우기도 했다. 병원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했다. 그 과정에서 선배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가장 힘이 되어 준 이가 같은 교실의 홍대식 교수과 원종호 교수, 그리고 비뇨기과 김민의 교수였다.

"가정이든, 조직이든, 어른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이를 말합니다. 본인에게 피해가 올 줄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어주고 힘이 되어 준 김민의 교수님은 우리들의 어른이셨습니다."

박 교수의 노력과 여러 선배 교수들의 지원으로 이제는 부천병원 종양혈액내과의 실력이 빅5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한다. 해마다 골수이식을 30~40건씩 하고 있다. 박 교수 부임 이후 총 350건 정도를 진행했다. 성공률도 최근에는 80%에 달한다.

박 교수는 지금도 주말까지 출근하는 의사로 유명하다. 삶의 여

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의사로서는 미쳐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박 교수는 과거 야학시절 느꼈던 마음으로 주변의 환자 뿐 아니라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97년 성모병원 시절부터 해 온 '백혈병환우회' 활동도 여전하다. 병원 내 봉사활동 뿐 아니라 무료급식, 소년소녀가장 지원, 고아원·양로원 봉사 등을 하고 있다. 3남매 자녀와 부인도 그 일에 함께 한다.

후배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에 임할 때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박 교수는 "연구 분야 있어서도 순천향대학병원이 더 높은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 활동과 후배양성에 힘을 기울 일 생각"이라며 "뛰어난 후배들이 많은 만큼 더욱 발전된 시스템 구축은 물론 연구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성화 진료로 생명 최전선 지키다

천안병원 호흡기내과, 최첨단 장비와 최고 의료진 구축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환자들이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각종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호흡기 관련 질병 중증환자들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생명과 직결되는 수많은 질병과 싸우며 환자 생명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곳. 바로 천안병원 호흡기내과다. 천안병원 호흡기내과는 최고의 팀워크로 충남지역을 넘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팀으로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다.

글_전진용 사진_전용철

호흡기내과는 폐, 기관지, 흉막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진료·연구하는 부서다. 주요 진료 분야는 폐종양, 호흡곤란, 기침에 관련된 알레르기성 기도 질환, 폐렴과 결핵 등의 염증성 질환으로 크게 나누어 각 분야 최고의 전문의들이 특성화된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호흡기 관련 질환의 특성상 중환자들의 완벽한 치료와 관리를 위한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의 조그만 변화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오랜 경험을 갖춘 전문 간호 인력은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천안병원 호흡기내과의 만성기침 클리닉은 20년 이상의 노하우를 자랑한다. 만성기침의 원인에는 천식, 알레르기성 또는 만성비염, 위식도역류질환을 비롯해 기관지나 폐의 염증성 질환, 폐암 등 다양한 질환이 숨어 있다. 이런 만성기침이나 아급성기침은 간단한 검사로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원인질환의 증상이 서로 구분이 되지 않고, 흉부 방사선 검사를 비롯한 단순 검사로는 정상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성기침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유도객담검사, 혈액검사, 알레르기 검사, 기관지 과민 반응 검사가 기본이며 이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검사가 더 필요한지, 혹은 입원검사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검사의 순위 선택과 그 결과 해석은 단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인 후에도 원인질환의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진료하는 의사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다.

호흡기내과 만성기침 클리닉은 이미 20년 이상의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폐기능 검사실 검진요원의 장기간에 걸친 검사 숙련도와 유도객담검사실의 전문 인력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의 치료기관내시경 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서울이남에서 유일하게 폐암, 대량출혈 등 다양한 원인으로 좁아진 기관(숨구멍)을 다시 확장시켜 주고, 종격동조직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치료기관지내시경 클리닉을 개설·운영하여 풍부한 시술 경험과 치료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특히 숨통이 막혀 심각한 호흡곤란 증상으로 내원한 응급환자들에게 굴곡기관지내시경과 경직성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레이저 절제술, 풍선확장술, 스텐트 삽입 등의 시술로 신속히 증세를 완화시키고 있다.

클리닉은 또 첨단 장비들을 도입해 충청권 최초로 '형광기관지내시경'과, 전신마취 없이 종격동경 검사를 시행하는 '초음파기관지내시경' 등을 시행하여 폐암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폐암 초기진단 클리닉도 손꼽히는 경쟁력 중 하나다. 폐암의 조기진단을 위해 전문인력과 일반 대학병원에서 잘 갖추지 않는 형광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하여 조기 폐암을 진단하고, 수술 범위를 확정하고, 유도객담 배출과 검사를 전담하는 인력과 시설로 폐암 및 알레르기 질환 진단에 한 차원 높은 진료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2009년 환경부로부터 석면폐질환센터로 지정되어 충청지역과 전국의 석면 노출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유관기관 및 학교 등과 연계하여 각종 호흡기-알레르기질환 예방교육(금연, 천식환자, 흡입치료 등)과 폐암홍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호흡기 질환, "우리가 최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지역사회 건강을 위한 쉼 없는 노력으로 찬사를 얻고 있다.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로부터 국민안심병원에 지정됐다. 국민안심병원은 감염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호흡기질환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분류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대상자조회 ▲감염관리 ▲면회제한 ▲의료진방호 ▲선별진료소 운영 ▲입원실, 중환자실 운영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해 국민안심병원에 지정됐다.

지난 7월에는 중부권 감염병 전문병원에 선정됐으며 현재 코로

나19 환자를 위한 6개의 음압병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천식은 6년 연속, 만성폐쇄성폐질환은 4년 연속이다. 평가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병원에 방문한 호흡기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비율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으며, 우리병원은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충남권역 결핵, "우리가 책임진다"

천안병원 호흡기내과는 충남권역의 결핵 퇴치에도 앞장서고 있다. 질병예방은 물론 환자관리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에 참여하면서 이 활동에 꾸준히 앞장서 왔다. 2014년에는 나주옥 교수가 충남권역 총책임자가 되면서 이 사업의 확대와 안정화에 열정을 쏟아 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2020년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질병관리본부가 개최한 평가대회에서 충남 사업단은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의 모범적인 수행으로 지역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업단은 나주옥 교수를 중심으로 충남도와 종합병원, 보건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방교육을 비롯해 결핵퇴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INTERVIEW

"충남 전역 책임지는 최고의 과로 특성화"

나주옥 교수(호흡기내과 과장)

"호흡기, 호흡기 알레르기, 폐암, 결핵 등 각 전문분야 교수들과 모든 팀원들이 호흡을 맞추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흡기내과는 7명의 교수와 전임의 2명, 호흡기(폐암) 전담간호사 3명, 기관지내시경실 전담 간호사 2명, 결핵 전담간호사 3명, 전공의 등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모는 부천병원 호흡기 내과와 더불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천안병원 호흡기내과를 이끌고 있는 나주옥 교수는 현재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의 충남권역 총책임자이기도 하다.

"충남지역에는 결핵환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성결핵 등의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호흡기내과가 자랑하는 분야 중 하나는 치료기관지내시경 클리닉이라 설명했다. "호흡기 레이저 수술, 기관지 스텐트 시술 등을 할 수 있는 곳은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거든요. 충남지역 뿐 아니라 전 지역에서 환자가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6개의 음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를 3개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5개실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줄곧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온 만큼 앞으로도 많은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폐암환자의 경우도 진단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모든 진료가 가능하며 교수들의 전문분야 분업을 통해 매년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적정성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

"저희 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많은 중증환자들을 관리해야하기에 앞으로 전문 교수들의 육성에 더욱 힘쓸 생각입니다. 또한 인원도 더욱 보강해 나갈 생각입니다"

나 교수는 "가장 어른이신 김용훈 교수가 과를 잘 이끌어 오면서 전국에서 가장 분위기 좋은 호흡기내과가 될 수 있었다"며 "충남 서해안 등 전 지역을 커버해야하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병원으로서 더욱 특성화하고 연구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INTERVIEW

"중재시술 분야 최고의 병원으로 만들어 나갈 것"

서기현 교수

치료 내시경, 환경질환, 중증환자 등이 전문분야인 서기현 교수는 충남지역에 환경질환, 특히 석면 관련 호흡기 질환이 많다고 설명했다.

"서해안 쪽에 석면광산이 집중해 있습니다. 현재 병원의 환자만도 500명이상 되거든요. 이러한 환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완벽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전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중재시술 중 치료기관지내시경 분야에서 국내 몇 안 되는 최고 전문가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 부천, 천안, 구미 병원 중 치료기관지내시경 클리닉을 운영하는 곳도 천안병원이 유일하다. 국내 전체로도 서울삼성병원과 함께 두 곳 뿐이다. 서 교수는 "하버드 등 미 동부지역 유학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배움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치료기관지내시경은 호흡기 관련 질환 중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부분을 내시경을 통해 치료하거나 검사하기 힘든 부분을 특수 내시경으로 찾아내는 분야다.

"현재 충청도 이남의 환자들은 저희 병원을 찾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환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천안병원 호흡기내과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흡기내과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팀워크와 소통'을 강조했다. "다른 교수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타 병원과 비교해 팀원간 소통이 가장 잘되는 과라 자부합니다. 화합과 소통을 통해 팀원 간 감정의 골을 만들지 않고 좋은 유대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국 환자에 대한 좋은 진료로 이어지거든요. 저희 과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입니다."

서 교수는 "지금의 과가 있기까지 김용훈 교수님과 나주옥 교수님 등의 노력이 큰 힘이 됐다"며 "이미 충청도 내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보유하고 충분한 연구역량도 발휘하고 있지만 이제는 환자진료와 연구성과에 있어서 보다 전국적인 지위의 병원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INTERVIEW

"체계화·시스템화로 보다 효율적 진료가 목표"

최재성 교수

폐렴과 염증성폐질환 등이 전문분야인 최재성 교수는 이 분야 특성상 중증환자의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일반 폐렴 뿐 아니라 각종 만성폐질환과 폐암환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중재시술이 특성화되어 있기에 이를 더욱 시스템화하여 폐암 등의 중증환자 치료에 더 많은 힘을 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학술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의사로서의 여러 요건 중 환자에 대한 진료와 소통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환자들에게 더 많은 정성을 쏟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건강관리도 뒷받침이 돼야 하거든요. 요즘은 건강관리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호흡기내과의 발전과 규모의 성장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전했다. "과가 커지고 더 많은 범위의 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조직적이고 시스템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팀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하나 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교수와 간호사 그리고 모든 팀원들 간의 유대관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저희 과는 구성원들의 인간적 유대가 각별합니다. 다 같이 융화되면서 함께 하기 힘든 대화나 묻기 힘든 질문도 저희 구성원들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과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적 유대 문화는 김용훈 교수님과 선배 교수님들이 기틀을 만드셨습니다." 최 교수는 "호흡기 내과는 그동안 연구와 규모와 경험 등 모든 면에서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며 "앞으로도 환자, 진료, 학문적 연구 모든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 최고의 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형규 변호사

“어려움 나누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학대아동·불우이웃·새터민 후원하며 무료 법률자문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이를 피멍이 들도록 때린 계모, 자녀 팔이 부러졌는데도 한 달여를 내버려둔 아버지, 남편의 폭력 속에서 힘들게 자녀를 돌보는 주부, 맞기 싫어 집을 나가는 아이들. 이처럼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말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이 적잖다. 이런 우리 이웃들에게 조력자로, 또한 친구로 힘이 되어주는 이가 있다. 구미병원 햇살아이지원센터 이사로 활동 중인 김형규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글_전진용 사진_전종훈

김형규 변호사는 서른이 훌쩍 넘은 나이, 이미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2002년에 사법고시를 준비해 바로 이듬해인 2003년에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거쳐 2006년에 변호사가 됐다.

김 변호사는 “서울의 입시학원에서 8년간 논술, 언어영역 등의 강사로 일했던 것이 법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의 어린 시절 꿈은 그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잘 버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변호사로 자리를 잡아가는 내내 김 변호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잊지 않았다.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형과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와 저는 너무도 힘들게 살았거든요. 저희 가족 뿐 아니라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 등 주변에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언젠가는 나와 같은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항상 생각했었습니다.”

변호사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김 변호사가 꿈꾸던 위치가 됐다. 주변을 둘러보니 지역사회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았다. 이렇게 시작된 김 변호사의 지역사회 후원과 봉사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저는 주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극히 당연한 일이거든요”

김 변호사는 2007년 3월부터 구미시 시각장애인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시각장애인 권익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다. 2008년 3월부터는 구미경찰서 보안협력위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에서 온 새터민들의 국내 정착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2018년 1월부터는 구미시의회 언론보도 피해구제 자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자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았다.

지역사회도 이런 김 변호사의 공로를 인정해 행장안전부장관상, 대한변호사회 우수변호사상,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구미세무서장 모범납세자 표창 등을 수여했다.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조금만 나누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햇살아이지원센터로 맺은 순천향과의 인연

김 변호사는 이미 많은 분야 지역사회와 인연을 맺었지만 가장 각별하게 생각하는 곳은 순천향대 구미병원의 ‘햇살아이지원센터’와의 인연이다.

햇살아이지원센터는 2007년에 연고가 없는 한 말기 암 환자가 불우한 아동을 도와주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뜨면서 자신의 전 재산 6천여만원을 순천향대 구미병원에 기증해 설립됐으며, 의료기관 최초로 원스톱 아동지원사업으로 아동학대로 인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우연히 지인을 통해 햇살아이지원센터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무엇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2년 2월부터 햇살아이지원센터 이사로 활동하면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법률자문 등의 도움을 주고, 치료지원을 위해 매월 100만원씩 총 일억원 가까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학대나 방임 받는 아이들은 겉으로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지만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이런 힘든 아이들이나 가정에게는 변호사로서 상담과 법률자문 등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은 같은 지역주민이자, 이웃으로서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남는 시간의 유일한 취미가 산행이라는 김 변호사는 “요즘 변호사일이 너무 많아서 더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한 5~6년간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고 나면 조금 시간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때에는 주변 이웃들에게 좀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과 김 변호사는 햇살아이지원센터를 통해 매해 50~60여명의 아이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 저 보다는 순천향대 구미병원의 의료진과 교직원들의 노고가 더 큽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어 아이들과 어려운 이웃주민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고 있거든요. 저도 힘닿는 데까지 함께 도울 생각입니다.”

좌우명이 “성실하게, 선량하게 살자”라고 말하는 김 변호사는 은퇴 후에는 독서를 즐기며 주변 이웃들에게 좋은 책들을 소개해주며 지내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을 내비쳤다.

순천향대서울병원 드라이브인·워킹 스루 호응

코로나19 의심자, 입원예정환자, 해외출국자에게 편의 제공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은 9월 21일부터 병원 내에서 운영하던 안심/선별진료소를 근처 미군부지로 이전하고, 드라이브 인 스루와 워킹스루를 함께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병원 앞 좁은 공간에서 운영하던 안심/선별진료소를 넓은 공간을 확보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코로나19 의심자와 입원 예정 환자, 해외 출국자를 위한 진료와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드라이브 인 스루와 워킹스루가 가능한 진료소는 미군 관련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부지 3,967㎡ 중, 661㎡를 사용한다. 부지가 넓어 주차도 넉넉하게 할 수 있고 대기 공간도 넉넉해 일하는 직원과 방문하는 사람들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한다.

안심진료소 2기와 선별진료소 2기(예비용1기 포함), 워킹스루 부스 2기, 드라이브 스루 1기, 채담실, 접수 창구, 탈의실, 대기실 등을 갖췄다. 안심진료소는 소아와 성인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나눴다. 별도의 음압텐트도 설치했다. 의료진 10여명과 행정직원 5명이 상주하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2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야간과 공휴일에는 병원 본관 앞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역 건강증진 위한 민관협력의 모범 사례

23일에는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김정재 용산구의회 의장,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엘리스 알 베이커(Ellis R Baker) 미8군 용산기지 사령관과 마이크 에스 헤베렐(Mikes S Heberer) 작전처장, 장성림 용산구 한남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용산구와 미8군 관계자들이 선별/안심진료소를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근무자를 격려하는 뜻깊은 행사가 이뤄졌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와 순천향은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베트남 퀴논시 백내장수술센터 설치 운영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등 크고 작은 일들을 서로 도우며 민관협력의 모범을 보여 왔다. 또한 마침 비어 있던 미군부지를 활용해 넓고 쾌적한 선별/안심진료소를 선도적으로 설치 운영해 용산구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순천향의 설립정신인 인간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매일 최대 300여건 검사 가능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은 “미군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도와주신 베이커 사령관과 성장현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국민건강지킴이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드라이브 인 스루는 의심환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줄을 서야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검사시간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워킹스루는 1인용 공중전화 부스 방식으로 음압을 유지해 안전한 진료를 보장한다. 매일 최대 300여건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다. 현재는 증상자 뿐 아니라 업무 상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시민들이 많고, 입원환자와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이 안심/선별진료소를 찾는다.

순천향대 부천병원-APEC 규제조화센터, '의료기기 전문교육훈련기관 시범운영 교육' 공동 개최

아시아 태평양 국가 대상 '의료기기 임상 평가, 품질 관리 시스템, 부작용 예방' 온라인 교육

순천향대 부천병원-APEC 규제조화센터, '의료기기 전문교육훈련기관 시범운영 교육' 공동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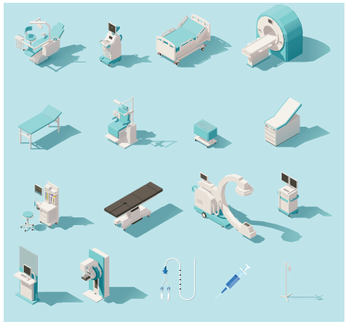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APEC 규제조화센터(APEC Harmonization Center)'가 공동 주최하는 '의료기기 전문교육훈련기관 시범운영 교육'이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임상 평가, 품질 관리 시스템, 부작용 예방 등 의료기기 전반에 대해 다뤘다. 한국 정부가 국제표준으로 등록 중인 '코로나19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반 진단 기법(RT-PCR)' 등 코로나19 관련 특별 교육도 마련되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교육은 APEC의 규제조화운영위원회(RHSC)에서 의료기기 규제조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로, 전문교육훈련기관(CoE)을 통해 정기적인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여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왔다. 올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워지자,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됐다.

순천향대학교는 지난 6월 APEC 규제조화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문교육훈련기관(CoE)'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다년간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며 구축한 '의료기기 부작용 정보 관리·보고 시스템'과 '지역 병원 협력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기 사고 예방에 앞장서 왔다.

이번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유경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센터장은 "우리 센터가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각국에서 의료기기를 관리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와 순천향대 부천병원 담당자들이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천안병원, '수면산업 발전' 위해 마중물 역할 수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에 참여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잠 부족 국가다. 수면시간이 부족하면 각종 질병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낮아진다. 수면 부족은 산업현장에서도 생산성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큰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 최근 수면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욕구 확산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면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면산업의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산업부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에 참여 중추적 역할

이와 때를 맞춰 천안병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에 참여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수면산업의 기술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사업은 충남테크노파크가 총괄하며, 천안병원을 비롯해 대전대천안한방병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서울대병원 등 양한방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천안병원은 사업의 수면산업 실증기반거점센터로서 ▲수면산업 산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시험분석법 개발 및 시험분석(실증)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11월까지, 지원 대상 기업 모집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 출원, 홍보마케팅 지원, 시험분석법 개발 및 지원

천안병원은 사업에 앞서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수면산업에 부합하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충남지역에 본사, 연구, 공장 등을 보유한 기업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모집기관에 선정되면 기업은 지원 받은 사업비를 통해 수면장애 극복을 위한 각종 의료기기를 개발하게 된다. 천안병원은 축적된 임상데이터와 제품에 대한 시험 분석 등을 제공한다. 참여 신청접수 마감은 11월 까지다. 신청은 전화(041-570-3833) 또는 이메일(schsleeplab@schmc.ac.kr)로 하면 된다.

양광익 수면센터장(신경과 교수)은 "기업 모집을 마치면 우선 기업보유기술 중 10건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 등을 지원하고, 5개 기업에는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면산업 실증기반거점센터를 이끄는 천안병원 수면센터는

수면의학 권의자인 신경과 양광익 교수가 운영하는 센터다. 양 교수는 미국 클리블랜드클리닉 수면장애센터에서 교환교수로도 활동한 바 있다. 센터는 50편이 넘는 수면관련 연구 성과를 SCI논문을 발표해 국내외 수면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각종 수면관련 국가학술연구사업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 수면건강 증진에도 많은 힘을 보태왔다. 2011년부터 년간 1천여 건의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다.

구미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운영

전문 간호인력 24시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순천향대 구미병원(병원장 임한혁)은 기존 51, 52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는 간호 인력을 증원하고 병실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하여 전문 인력이 직접 입원환자에게 24시간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간병비 부담은 줄이고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와 함께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구미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7년 3월 39병상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30병상, 2020년 3월 26병상을 추가 확대 했으며, 2020년 9월, 76병상을 추가하여 전체 171병상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 하고 있다.

구미병원은 환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병실 리뉴얼공사로 환경을 개선하여 환자안전, 감염병예방 등 환자중심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안전한 병실 환경 조성을 위해 전동침대 설치 등 모든 비품을 새로 교체하였으며,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환자들에게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임한혁 병원장은 "환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전반을 재정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질 높은 의료 환경조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연구진이 대사조절체 단백질인 세스트린(sestrin2)이 단백질 복합체 mTORC1에 작용해 자궁내막암세포의 증식과 전이 등을 억제하며, 예후와도 연관이 있음을 밝혀, 향후 치료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식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박환우 건양대의대 교수팀은 정량 실시간 PCR(qRT-PCR) 검사를 통해, 자궁내막암에서는 정상 내막세포에서보다 훨씬 더 mTORC1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카플란 마이어(Kaplan-Meier) 생존 분석으로 Sestrin2의 발현이 증가할수록 자궁내막암 환자들의 생존율과 무질병 생존기간(disease-free survival)이 감소하는 것도 확인했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자궁내막세포에서 세스트린이 mTORC1를 억제하는 역할만 알려져 있었고, 자궁내막암에서 세스트린이 하는 역할은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mTOR pathway와 관련된 표지자(RPTOR, MTOR, RHEB등)들 중 자궁내막암 환자조직에서는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링 상호 작용 분석(GEPIA, Gene Expression Profiling Interactive Analysis) 자료를 통하여 세스트린이 RPTOR유전자와 관련이 있음을 알아냈다.

김정식·박환우 교수팀은 "세스트린이 mTORC1에 작용해서 자궁내막암의 암세포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세스트린이 자궁내막암 치료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연구"라고 강조했다.

세스트린은 스트레스에 의해 나타나는 대사조절체 단백질이다. mTOR라는 신호전달체계의 활성을 저해하여 암 세포증식과 노화와 관련한 퇴행성질환, 비만 및 당뇨병과 관련한 대사증후군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TORC1(mammarian target of rapamycin complex1)은 세포의 성장이나 노화, 세포 대사를 조절하는 단백질 복합체다. 성장인자, 영양소, 스트레스와 에너지 상태 등에 반응하여 단백질 합성, 리보좀 생합성, 자가식작용(Autophagy) 등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고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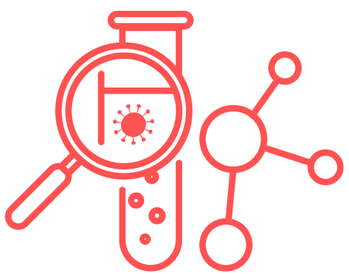
자궁내막암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비만 환자에서 더 잘 발생한다. 노화와 비만과 연관 되는 조절체가 mTORC1이다. 스트레스에 의해 유도되는 세스트린은 환경이나 p53, HIF-1등에 의해서도 발현이 되며 결과적으로 mTORC1을 억제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번 연구 논문은 학술저널 캔서지(Cancers,IF6.1) 9월호에 'mTOR-Dependent Role of Sestrin2 in Regulating Tumor Progression of Human Endometrial Cancer'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한편, 김정식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0년도 하반기 이공분야 기초 연구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에 선정돼 '자궁내막암에서 ULK1인산화에 의한 조절기전 규명 및 항암치료 타겟 발굴'연구를 진행한다.

김정식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SESTRIN2



고혈압 중년 여성이 눈 떨린다면 '반측 안면경련' 의심해봐야!

박정호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과 교수

눈 떨림 증상이 나타나면 스트레스나 과로, 마그네슘 부족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눈 떨림은 눈꺼풀 떨림, 눈꺼풀 연축, 반측 안면경련 등 크게 3가지 질환에 의해 발생한다.

일시적인 눈 떨림은 과음, 카페인 과다 섭취, 눈의 자극, 흡연, 스트레스, 피로, 영양결핍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눈꺼풀 떨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수 시간 또는 수일 이상 반복되면 안질환, 말초신경질환, 뇌 신경계 질환 등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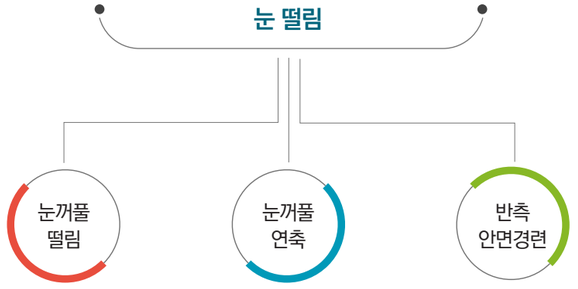
눈 떨림의 원인 중 '반측 안면경련'은 중년 이후 여성에서 흔히 발생한다. 안면신경이 주변의 작은 뇌혈관에 의해 지속해서 자극받아 눈둘레근을 포함한 모든 안면 근육에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연축 및 경련이 일어난다.

반측 안면경련은 고혈압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드물게는 종양, 두 개내 혈관 이상, 다발성경화증, 얼굴 신경마비 후유증이 원인일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올바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반측 안면경련에 의한 눈 떨림을 방치할 경우, 점차 증상의 정도와 범위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치료는 약물, 보톡스 주사, 미세혈관 감압술이 사용된다. 약물치료는 클로나제팜이나 카르바마제핀과 같은 항뇌전증 약물을 사용하지만, 효과가 적고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적이다. 보톡스 주사요법은 연축이 발생하는 근육에 보툴리눔 독소를 주입하는 치료법이다. 비침습적 치료로 안전성과 효과가 우수하지만,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간격의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미세혈관 감압술은 신경외과적 수술을 통해 얼굴 신경과 얼굴 신경을 압박하는 뇌혈관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다. 수술 환자 5,6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 91%에서 증상이 사라졌다. 다만, 약 10%에서 증상이 재발하거나 안면 마비, 청력 소실이 발생했고, 0.1%에서는 치명적인 뇌출혈이나 사망이 발생했다.

눈 떨림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의 적신호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적당한 영양 섭취와 정신적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 이를 위해 과음이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 흡연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고혈압이 있는 경우, 혈압을 철저히 조절하고 평소 적당한 안면 근육 운동이나 눈 주변 마사지를 하면 눈 떨림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잦은 발목 접질림, 방치하면 '발목 관절염'으로 이어져

김우종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정형외과 교수

발목 관절을 흔히 '침묵의 관절'이라고 자주 표현한다. 발목에 발생하는 질환들이 별다른 징후 없이 악화된 후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발목 통증, 붓기 등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발목 관절염이라고 진단 결과를 이야기하면 "발목에도 관절염이 생기나요?"라는 질문을 흔히들 한다. 그렇듯 발목에서 1차성(외상없이 발생하는) 관절염의 발생 빈도는 척추, 고관절, 무릎, 수부 등 다른 관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외상으로 인해 정합성(congruency, 딱 맞는 것)이 무너지거나 잦은 인대 손상 등으로 인해 만성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2차성 관절염의 발생이 증가한다. 발목 골절 이후에는 14~70% 정도까지 관절염이 발생하는 등 손상에는 매우 취약한 편이다.

젊다고 안심해선 안 돼

발목 관절염 환자의 상당수는 30~40대다. 따라서 젊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발목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염좌라고 해도 손상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반복적인 접질림은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발목에 지속적인 통증이나 부종이 있는 경우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조기에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심되면 엑스레이 검사부터

발목 관절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촬영한 X-ray를 기본으로 발목의 전후방, 측면, 격자 사진을 촬영한다. 관절염이 진행된 발목 관절이라도 체중 부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 관절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족부 정렬을 확인해 내반(↘↙) 또는 외반(↙↘) 변형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뼈가 자라는 골극이 있는 초기 관절염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CT)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한 연골 및 연골하골, 연부조직의 이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등으로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상의학적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의 병력을 잘 파악하여, 증상의 위치나 발생 기전,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비수술적 치료부터 수술까지

발목 관절염의 치료에는 어느 관절과 마찬가지로 '보존적 치료(비수술적)'와 '수술적 치료'가 있다. 초기 관절염의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우선 환자에게 발목 관절염의 경과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약물치료, 체중감량, 물리치료, 관절 내 주사 치료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고 발목으로 가는 압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진행한다. 또한 환자에게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운동을 찾아 권유해 주기도 한다. 비수술적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을 하다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한다. 초기 관절염에서 발생한 충돌 증후군의 경우 관절경을 이용한 혹은 개방적으로 변연절제술 및 골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중기는 절골술, 말기는 인공관절치환술

중기 관절염에서는 일부 진행된 관절염에 대해 손상된 연골 재생을 유도하고 틀어진 정렬과 관절 간격을 회복하여 진행을 늦추고 회복을 도모하는 '과상부교정절골술(Supramalleolar Osteotomy, SMO)을 시도할 수 있다. 말기 관절염에서는 '발목관절유합술(Ankle Fusion)'과 '인공관절치환술(Total ankle Arthroplasty)'이 대표적인 수술 방법이다. 과거에는 인공관절치환술의 높은 실패율로 인해 유합술을 많이 시도했지만, 지금은 인공관절치환술의 디자인 및 수술기구, 수술 기법의 발전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 시행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유승희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성인병의 한 질환인 당뇨병은 말 그대로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는 병이다. 좀 더 자세히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보면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안의 당이 정상 수치 이상으로 오르는 병이다. 공복혈당(8시간 이상 금식 상태) 100~125mg/dL 또는 식후 2시간 혈당 140~199mg/dL는 당뇨전단계로 정의하며, 공복혈당 126mg/dL 이상 또는 식후 2시간 혈당 200mg/dL 이상의 경우 당뇨병을 의심하고 재검을 통해 동일하게 혈당 수치가 높으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또한, 최근 2~3개월간의 혈당 평균치를 나타내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이렇게 올라간 혈당이 소변으로 나오게 되어 소변에서도 당이 검출된다.

소아에서 발생하는 제1형 당뇨병과 성인병에 속하는 제2형 당뇨병

당뇨병은 흔히 알려진 성인병인 고혈압, 고지혈증과 마찬가지로 중년 이후의 성인에서 많이 발생한다.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제1형 당뇨병이 선천적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결핍되어 발생하는데 반해, 성인병에 속하는 제2형 당뇨병은 과도한 칼로리 섭취에 의한 과체중이나 비만, 활동량 부족 등 오랜 기간의 생활습관과 연관이 깊어 생활습관병으로도 불린다.
최근에는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젊은 성인에서도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뇨병의 치료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활동량의 유지, 특히 운동을 통한 근력과 체중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생활습관이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활습관의 교정 없이 약물이나 인슐린 치료로 혈당을 관리하게 되면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다시 혈당이 오르게 되어 경구약의 용량을 늘리거나 인슐린의 투여 단위를 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식생활 6가지 기본원칙

당뇨병 환자를 위한 식생활에 대해 대한당뇨병학회는 다음의 6가지 기본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과식을 피하고 알맞게 먹는다. 특히, 취침 전 야식을 즐겨 먹는 것은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유발하므로 삼가야 할 습관이다. ▲두 번째,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골고루 균형적인 식사를 한다. 직업이나 생활환경 요인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 ▲세 번째,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 20분 이상 먹도록 한다. 포만감이 느껴지기 전 식사를 마치면 식사 후 간식을 찾게 되기 쉽다. ▲네 번째, 단순당(설탕, 꿀)과 고지방 식품은 가급적 제한한다. ▲다섯 번째, 섬유소가 많은 식품인 채소 등은 충분히 먹는다. ▲여섯 번째, 가능한 싱겁게 먹는다. 국이나 찌개를 자주 섭취하는 우리나라의 식생활 특성 상 짠 국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싱겁게 조리하거나 건더기 위주로 먹도록 해야 한다.

유산소운동과 저항운동(근력운동) 중요

식생활과 함께 운동도 중요한 생활습관이다. 특히 제2형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혈당 조절, 체중 유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감소시킨다. 유산소운동과 저항운동(근력운동)은 모두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약간 숨이 찬 정도(최대 심박수의 50~70%)인 중등도의 강도로 주당 150분 이상, 최소 주당 3회 이상 유산소운동과 1RM의 75~80% 정도로, 1일 8~10회, 3세트를 주당 3회의 저항운동을 권유한다. 1RM은 최대한의 힘으로 1회 반복할 수 있는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적정무게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무게를 증가시켜 1회에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중량을 찾아내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체지방량이 증가하므로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활동은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당뇨병은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다. 간혹 치료를 통해 혈당이 다시 정상 수준으로 낮아지면 당뇨병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환자들이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제2형 당뇨병은 적절한 식생활과 운동을 통해 경구약을 중단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최소 용량의 경구약만 복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상 혈당이 되었다고 해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등한시하면 다시 혈당이 오르게 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강한 생활습관은 당뇨병 환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질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인 건강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작지만 소중한 나의 건강한 습관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구미병원 최첨단 검사실 자동화시스템

a3600 Automation Track

a3600 Automation Track의 주요 장점

1. 최대 시간당 3,600개의 검체를 이송 가능한 Track 시스템
2. Dual Lane(Working Lane, Bypass Lane)을 이용하여 병목현상 없이 모든 검체를 빠르게 이송
3. RFID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검체 추적관리
4. 대용량 검체냉장고 모듈을 이용한 검체 보관 및 자동 재검, 검체 보관일 경과 후 자동 폐기 기능
5. 검체 접수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의 자동화

‘순천향’ 정신을 강남 중심에 심다

국제학술지에 20여 논문 발표한 연구하는 개원의

‘성형’이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 강남. 강남 한 복판에서 ‘4월31일’이라는 병원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름으로 성형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가는 병원이 있다. 강남이라는 치열한 경쟁지에서 ‘순천향’이라는 모교의 이름을 맨 앞에 내걸며 최고의 성형외과로 우뚝 세운 김재훈 원장은 모교의 정신이 지금의 병원을 만들었다고 단언한다.

글_전진용 사진_장덕희

김 원장이 처음 개원한 것은 지난 1999년이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4년간 교수로 재직하다 돌연 개원을 결심했다. 건강이 좋지 못해 해외연수 계획을 포기한 후 내린 결정이다.

“집에 가는 길에 서울 논현동 한 건물에 붙어있는 ‘임대문의’라는 문구를 보고 그 곳을 병원자리로 정했습니다. 이름도 다른 병원들처럼 본인의 이름을 따서 ‘김재훈 성형외과’라고 지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5회 동문인 김 원장의 학창시절은 꽤 낭만이 있었다. 어쿠스틱 기타 밴드를 결성해 신촌에서 공연도 했다. 낭만을 즐기며 의대공부에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

“재시험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80점 이상은 맞았다는 얘기죠(웃음).”

주변에는 논과 밭뿐이던 캠퍼스이지만 동문들과 추억은 지금도 새록새록 하다. 무엇보다 학창시절의 기억으로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순천향’이라는 이름의 유대감과 애교심이었다고 회상한다. 이런 김 원장의 마음은 개원의가 된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비록 역사가 짧은 의대였지만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의대만의 끈끈한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이는 1회부터 시작된 많은 선배님들로부터 이어 내려온 정신입니다.”

순천향 동문이 뭉쳐 최고가 되다

2006년 교수시절 제자였던 박성완 원장이 찾아왔다. 김 원장은 박 원장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새롭게 병원의 이름도 바꿨다. 지금의 ‘4월31일’이다. 유명 광고카피라이터였던 친척이 지어준 이름이다.

“달력에는 없는 하루를 더 준다는 의미입니다. 봄날의 아름다운 하루를 더 준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들 이 이름에 반대했지만 저와 돌아가신 어머니는 이 이름이 맘에 들었습니다.”

이후 2007년 순천향대 1년 후배인 오원석 원장이 합류하면서 지금의 순천향대 3총사가 완성됐다. 비록 타 의대에 비해 짧은 전통을 가진 의대였지만 김 원장은 순천향 의대 출신임을 더 강조했다. 개업 시부터 ‘순천향’ 이름을 전면에 내걸고 강남 한복판에서 실력으로 승부했다.

“지금 보면 저희 선배님들 중에 너무도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순천향 출신으로 눈부신 성공을 거둔 선후배들과 출중한 실력을 가진 동문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학창시절부터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은 애교심과 유대감이 큰 힘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하는 개원의’로 순천향 위상을 높이다

김 원장은 ‘연구하는 개원의’라 불린다. 연구라는 것이 여건상 힘들지만 그동안 SCI 등재 7건을 비롯해 국제학술지에 낸 논문만도 20여개에 달한다. 두껍고 뭉툭한 동양인의 코 수술이 서양인의 코 수술과는 달라야 한다는 논문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기도 했다. 동양인의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수술방법을 쓴 그의 논문은 성형외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인 미국성형외과학회지(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에 실리기도 했다.

“임상 또한 하나의 연구입니다. 개원으로서 얻은 많은 임상연구가 제 후배들이나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 원장이 성형외과의 천국이라 불리는 강남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본인만의 의사로서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많은 병원들이 마케팅 베이스로 병원을 알리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마케팅 보다는 의학적인 퀄리티로 경쟁하고자 했습니다.”

김재훈 원장이 내세우는 가치가 하나 있다. 바로 ‘정직’이다. 김 원장은 “성형이 대중화되면서, 환자를 ‘돈’으로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성형을 행하는 경우도 많다”며 “상담과 진료, 수술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직하게 환자를 대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환자는 물론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제는 순천향대학병원 뿐 아니라 여러 다른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보낸다. 재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환자들도 김 원장을 찾는 이유다.

“이제는 ‘성형’이라는 분야가 현대인의 하나의 문화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와서 정보도 얻고 여러 시술을 통해 행복과 힐링을 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4월31일 성형외과에는 유독 장기근속자가 많다. 또한 장기적으로 방문하는 단골 고객도 많다. 김 원장은 이유를 ‘순천향만의 인본주의’에서 찾는다.

“순천향만이 이어온 정신이 우리 병원에도 스며있는 것 같습니다. 의술보다 인성이 먼저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김 원장은 “지금 우리 순천향대학병원을 보며 그 위상이 얼마나 커진지 실감한다”며 “후배들 역시 순천향 출신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모교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의료원 / 순천향대 / 의대동창회

중앙의료원·한캄봉사회, 캄보디아와 온라인 의학 세미나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원장 서유성)과 한캄봉사회는 8월 28일 의료원 HRD룸에서 순천향 의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캄보디아 동문 의료진과 온라인 의학세미나를 개최했다. 의료원과 한캄봉사회는 2002년부터 매년 의학 세미나와 의료봉사를 진행해왔으나 올해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캄보디아 동문 의료진들과 인연을 이어갔다. 1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관리 방안(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내과 김태형) ▲감염병 대응 병원관리(순천향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코로나19 대응 경험공유(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내과 추은주) ▲코로나19 현황(캄보디아 시아누크 병원 프렙 레이)을 다뤘다. 2부에서는 ▲뇌질환 최소 침습술(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외과 조성진) ▲복강경 수술의 기본 원리와 기술(순천향대서울병원 외과 조성진) ▲코로나 시대의 기관절개술(순천향대부천병원 이비인후과 박기남) ▲신경외상 질환에 대한 현황(캄보디아 프레꼬사막 병원 빈쳇) ▲고혈압 위기 환자의 임상과 치료(캄보디아-러시아 친선병원 카카다) ▲심부전 환자의 임상과 치료(캄보디아-러시아 친선병원 소바나)를 발표했다. 특히 주 대한민국 캄보디아대사관의 롱 디망쉐(Long Dimanche) 대사가 세미나 현장에 직접 참석해 어려운 시기에 힘써주는 순천향 동문 의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중앙의료원·주한캄보디아대사관 보건의료 MOU 체결

순천향대중앙의료원(원장 서유성)과 주대한민국캄보디아대사관(대사 롱 디망쉐)은 9월 7일 이현옥홀에서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의료전문가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 의료컨퍼런스 개최, 의료인 교환방문 등을 통해 학술 및 임상적 교류를 확대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서유성 의료원장은 "지난 20년간 순천향은 캄보디아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기초를 상생의 관점에서 다져왔다"며 "미래 20년은 후학 양성을 통해 캄보디아 보건의료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대사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롱 디망쉐 주대한민국캄보디아 대사는 "순천향중앙의료원에서 교육받은 캄보디아 의료진이 130여명, 캄보디아에서 수행한 순천향 보건의료 프로젝트가 무려 12건에 달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캄보디아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힘써준 순천향과 더 좋은 관계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온오프라인으로 신규 홍보대사 임명

순천향대는 10월 13일 교내 대학본관 스마트홀에서 '제19기 학생 홍보대사 알리미 및 제7기 온라인 홍보대사 나누미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에서 올해 새롭게 선발된 김영 학생 등 오프라인 학생홍보대사 '알리미' 10명과 정지상 학생 등 온라인 홍보대사 나누미 15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학생 홍보대사 '알리미'는 2001년 1기를 시작으로 18기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 올해에는 신규로 임명된 19기 10명의 홍보대사가 활동하게 된다. 대학홍보영상, 브로슈어 등의 대표 모델, 입시박람회, 캠퍼스 투어, 대학의 각종 행사안내 지원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게 된다. 온라인 홍보대사 '나누미'는 SNS를 통한 대학홍보를 위해 2014년 1기를 시작으로 금년 7기를 신규로 15명을 선발하고 총 28명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대학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순천향대, '1000원의 아침밥' 제공

순천향대가 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한시적으로 단돈 1,000원에 제공했다. 대학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2020년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돼 학생들에게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했다. '1000원의 아침밥'은 11월 13일까지 한끼 4,000원 내외의 아침밥을 1,000원에 공급한다. 식재료는 충남 아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한다. 쌀로 만든 빵, 음료와 디저트를 결합한 상품과 카레밥, 추억의 도시락 등 기존 아침밥과 차별화한 10여개의 메뉴를 교내 7개 급식업체가 공동으로 준비했다. 이외에도 치킨마요 덮밥과 스팸마요 덮밥을 비롯해 해장라면과 공깃밥, 김치볶음밥과 김치찌개, 든든한 백반 한식뷔페 등을 제공한다.

'2020 순천향 건축전' 온오프라인으로 열어

순천향대가 국내 대학 건축학과 최초로 온 · 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하는 '2020 순천향 건축전'을 열었다. 대학은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20년째 열어온 '순천향 건축전'을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감염증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 전시는 최소화하고 디지털 비대면 온라인 전시회로 열었다. '디지털 건축전&환경'이라는 주제의 이번 행사는 전시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 졸업설계 24개 작품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야외 '3D프린팅 파크'를 조성해 블록캐빈, 애니멀아트, 문화재 프린팅 등 10여개 작품도 선보였다. 서교일 총장은 "이번 건축전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온 · 오프라인의 새로운 모델 제시와 4차 산업 3D분야 컨텐츠를 동시에 보여주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대상

순천향대학교 2명의 대학생이 기업체에서 익힌 실무사례가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2020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대학과 기업이 손잡고 진로와 취업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IPP일학습병행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다. 앞서 순천향대와 동물의약품분야 강소기업인 우진비앤지㈜는 지난해부터 기업의 안정적인 우수인재 확보와 취업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했다.

서울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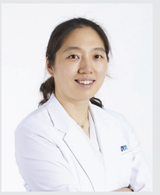
편복양 교수, 세계알레르기학회 특별공로상 수상

편복양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9월 17일부터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세계알레르기학회 학술대회(World Allrrgy Congress 2020)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온라인 생중계한 학술대회 개회식에서 그 동안 학문적인 업적과 학회발전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인정받아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Scientific Committee Conjoint Chair로 활약했다.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 사업 4개 과제 선정
병적비만·황반부종·자궁내막암·신장핵의학 진단 등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 교수 4명의 연구과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0년도 하반기 이공분야 기초 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김상현 외과 교수 '위소매절제술(병적비만수술)에 사용하는 압력 감지센서를 부착한 부지(가이드 튜브) 개발을 위한 연구' △ 선해정 안과 교수 '분지 망막정맥폐쇄 환자에서 황반부종 유무에 따른 허혈지수의 변화와 연관인자에 관한 연구' △ 박수빈 핵의학과 교수 '99mTc-sestamibi 콩팥스캔 및 SPECT/CT를 이용하여 콩팥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법 개발'등이다.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에 선정된 김정식 산부인과 교수는 '자궁내막암에서 ULK1인산화에 의한 조절기전 규명 및 항암치료 타겟 발굴'연구를 진행한다.

외과 김상현 교수


안과 선해정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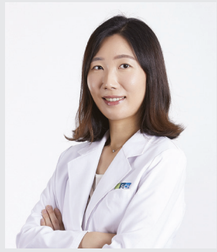
핵의학과 박수빈 교수

산부인과 김정식 교수

"녹차 추출물 바르면 여드름 좋아진다."
김수영 피부과 교수팀 연구 발표

항산화 효과와 콜레스테롤, 혈당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녹차 추출물이 여드름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나왔다. 또한 녹차를 마시는 것 보다는 녹차추출물을 직접 여드름에 병변에 바르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김수영 순천향대서울병원 피부과 교수팀이 2019년 8월까지 전자의학학술 매체인 펍메드(PubMed), 엠베이스(Embase), 코크란 라이브러리(Cochrane Library)에 등재된 녹차 추출물 효과를 다룬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메타분석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녹차추출물을 4~8주 동안 여드름 병변에 직접 바른 그룹과 녹차 추출물을 경구 복용한 그룹을 통합 분석한 결과, 얼굴의 염증성 여드름 병변의 개수가 유의하게 평균 9.38개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염증성 여드름 병변에 녹차추출물을 직접 바른 그룹과 경구 복용한 그룹을 각각 나눠서 분석한 결과에서는 직접 바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 여드름의 비염증성 병변 (개방면포, 폐쇄면포) 역시 녹차 추출물을 직접 발랐을 경우 비염증성 병변의 개수가 평균 32.44 개 유의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 반면, 녹차 추출물을 경구 복용한 경우에는 비염증성 병변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코 성형, 일체형 비익연골 이식법 개발 및 논문 발표
김신애 이비인후과 교수팀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 게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김신애 교수·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장용주 교수팀이 개발한 코 성형 수술법 '일체형 비익연골 이식법'이 코끝과 콧볼의 연결부위 약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시켜 준다는 것을 확인, 논문으로 최초 발표했다.

김 교수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 29명(남성 14명·여성15명)을 대상으로 이 술기를 시행한 결과 80% 이상의 환자에서 코끝과 콧볼 연결부위 약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김 교수는 "자연미를 갖춘 코를 위해서는 코끝과 콧볼 연결부위가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발달되지 않은 경우, 이전 성형수술로 구축(염증이 생겨 코의 모양에 변형이 오는 현상)이 된 경우 콧망울과 콧볼 사이에 두드러진 골이 발생하게 된다"며 "집게로 코를 집은 듯한 모습 때문에 환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새로운 수술법인 일체형 비익연골이식법을 논문에 소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부천병원

관상동맥우회술 6차 적정성 평가 1등급

부천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6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우수 의료기관임을 인정받았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심장질환 사망 원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허혈성 심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하며, 좁아지거나 막힌 관상동맥 부위를 우회하여 혈액이 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다. 이번 6차 평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종합병원 이상 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지표는 ▲관상동맥우회술 건수, ▲수술 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 등이다.

부천병원, 2020년도 정부 지원 '생애 첫 연구 과제 3건' 선정

부천병원이 정부가 지원하는 '2020년도 하반기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생애 첫 연구'에 3건의 연구 과제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생애 첫 연구' 지원사업은 정부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신진 연구자의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기초 연구 분야를 강화하고자 최대 3년간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천병원은 ▲공민규 심장내과 교수의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예후 예측 인자로써 자가포식 활성도의 효용성 연구', ▲신경은 영상의학과 교수의 '저선량 CT를 이용한 국가 폐암 검진 사업에서 림프절 판독에 대한 알고리즘 개발', ▲차한규 성형외과 교수의 '유방암 수술 후 발생한 이차성 림프부종의 병태 기전 규명을 통한 3차원 생체모사 림프관 플랫폼 개발' 등 3건이 선정됐다.

최서연 영상의학과 교수, '2020년 대한영상의학회(KSR) 최다피인용 논문상' 수상

부천병원 최서연 교수가 최근 '2020년 대한영상의학회(KSR) 최다피인용 논문상'을 수상했다. '대한영상의학회 최다피인용 논문상'은 2019년 12월까지 최근 3년간 발간된 국내외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피인용 횟수를 평가하여 학계 영향력이 우수한 논문을 수상한다. 최 교수는 북미영상의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Radiology에 '간세포암에서 Cytokeratin 19 양성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 소견(IF 7.931)'이라는 연구 논문을 2018년에 발표했다. 해당 연구 논문은 현재까지 다른 연구 논문에 총 26회 인용되어 연구 영향력이 매우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문종호 소화기내과 교수, '2020년도 순천향대학교 우수학술연구자상' 수상

부천병원 문종호 교수가 최근 '2020년도 순천향대학교 우수학술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순천향대학교 우수학술연구자상은 대학 전체 교수진 중에서 학문 연구 업적이 탁월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해 연구 실적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문종호 교수는 이번이 3번째 우수학술연구자상 수상이다. 문종호 교수는 췌담도암 명의로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지 등 세계 최고 저널에 다수의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국내외 굴지의 의료기기 회사들과 함께 금속 스텐트를 개발하는 등 소화기 치료 내시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천안병원

정부지원 과제 5개 선정 '쾌거'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 사업에서 5개의 과제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선정된 이번 과제에는 9명의 의료진이 참여한다. 앞으로 천안병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감염병 진단장비 개발을 비롯해 뇌혈관·피부·성형·콩팥병 질환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한다. 선정된 사업으로는 ▲저선량 포타블 흉부 X-ray 기기 개발(이비인후과 최성준 교수, 정형외과 정기진 교수, 핵의학과 유익동 교수, 감염내과 박정완 교수, 영상의학과 박찬호 교수), ▲뇌혈관질환 환자에서 혈관조영용 카테터의 효능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향적 등록 관찰 연구(신경외과 오재상 교수), ▲항암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 이후 발생한 구강점막염에 대한 저출력 레이저 치료기의 효능 및 안정성 평가(피부과 김정은 교수), ▲임상 환자 치료를 위한 맞춤형 하이드로젤 기반 Microbeads와 약물 전달체 시스템 개발 연구(성형외과 최환준 교수), ▲인공지능 기반의 입원환자 대상 급성콩팥손상 조기 발견을 위한 모델 구축(신장내과 조남준 교수) 등이다.

특별한 감염병 예방용 목걸이 선물 받아

천안병원이 감염병 예방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목걸이를 선물 받았다. 순천향대학교 창의디자인센터(센터장 김국원)가 자체 제작해 병원에 전달한 목걸이는 근접 센서와 진동모터 등으로 만들어진 펜던트가 달려있다. 목걸이를 착용하면 손이 얼굴로 향하는 즉시 펜던트가 진동을 울린다. 오염된 손을 통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경고음이다. 목걸이는 최근 미국 나사(NASA)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발한 것인데 순천향대학교 창의디자인센터가 디자인과 기능 등을 여러 번 개선해 완성도를 크게 높였다. 3D프린터를 이용해 제작한 목걸이는 센터의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모든 제작 공정을 직접 담당했다. 김국원 센터장(기계공학과 교수)은 "목걸이는 학생들이 어려운 납땜까지 직접 해서 만든 완전 수제품"이라면서, "코로나19에 여념 없는 의료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19구급대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

천안병원 교수 4명이 충남지역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아산소방서 대회의실에서 2회(9월 28일과 10월 8일) 실시된 교육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으며 93명의 구급대원이 이수했다.

교육은 △산부인과 김윤숙, 전혜지 교수의 ▲임산부 환자평가 및 응급처치(질출혈, 임신성 고혈압, 진통 및 양수파수 등)과 △소아청소년과 송준환, 김호 교수의 ▲신생아 소생술(양압환기, 기관내관 삽입, 후두마스크 삽입, 흉부 압박 등) 등 2개의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이화영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화영 교수가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화영 교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국가 정신보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교수는 지역 최초로 '마음챙김 명상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민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한편, 충남 경찰관들의 트라우마 극복과 마음건강을 돌보는 '마음동행센터'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위원장으로서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프로그램 개정 연구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구미병원

성명순 교수, 생애 첫 연구사업 산정

구미병원 소아청소년과 성명순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0년도 생애 첫 연구사업'에 선정됐다.

'생애 첫 연구사업'은 연구역량을 갖춘 신진 연구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연구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최대 3년간 연간 3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성명순 교수는 연구자의 우수성 및 역량과 의지를 인정받아 2020년도 생애 첫 연구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연구과제는 '환경유해물질이 학동기 소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교육의 필요성'으로 향후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성명순 교수는 "공단이라는 구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동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며 "적극적인 연구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통장연합회 업무협약

구미병원은 지난 9월 23일 구미시 이·통장연합회(회장 김용인)와 지역사회 발전 및 보건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구미병원 임한혁 병원장과 구미시 이·통장연합회 김용인 회장을 비롯하여 주요 보직자들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양 기관은 이번협약을 통해 공동 발전 도모 및 정보공유, 구미지역의 의료공백 최소화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최첨단 검사실 자동화시스템 도입

구미병원은 최근 진단검사의학과에 검사실자동화시스템(TLA, Total Laboratory Automation System)인 ACCELERATOR a3600을 도입하여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검사실자동화시스템(TLA)은 검사접수부터 검사 및 분석결과 산출까지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검사시간을 최소화하고 정보전달의 신속화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이번에 도입한 검사실자동화시스템(TLA)은 ACCELERATOR a3600 시스템에 면역검사 장비와 생화학 장비가 연결되어 있으며, 원심분리기 2모듈과 대용량냉장고 등 다양한 자동화 모듈을 연결하여 검체 접수에서부터 분류, 이송, 원심분리, 뚜껑제거, 보관 및 재검의 과정과 최종적으로 검체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구미병원은 최첨단 검사실 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통해 지역민에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우극현 교수, 옥조근정훈장 수상

구미병원 우극현 교수는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지역근로자 건강증진과 의과대학 후학양성 등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우극현 교수는 2012년 9월 구미시 불산사고 당시 건강영향조사단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무리 하였으며, 이후 환경부로부터 2013년 5월 유해가스노출환경보건센터와 2020년 3월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지정받아 센터장으로서 환경현안에 대한 연구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뿐만 아니라 순천향대학교에 평생을 봉직하면서 대학발전에 헌신하고 교육과 학술연구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9월 명예교수로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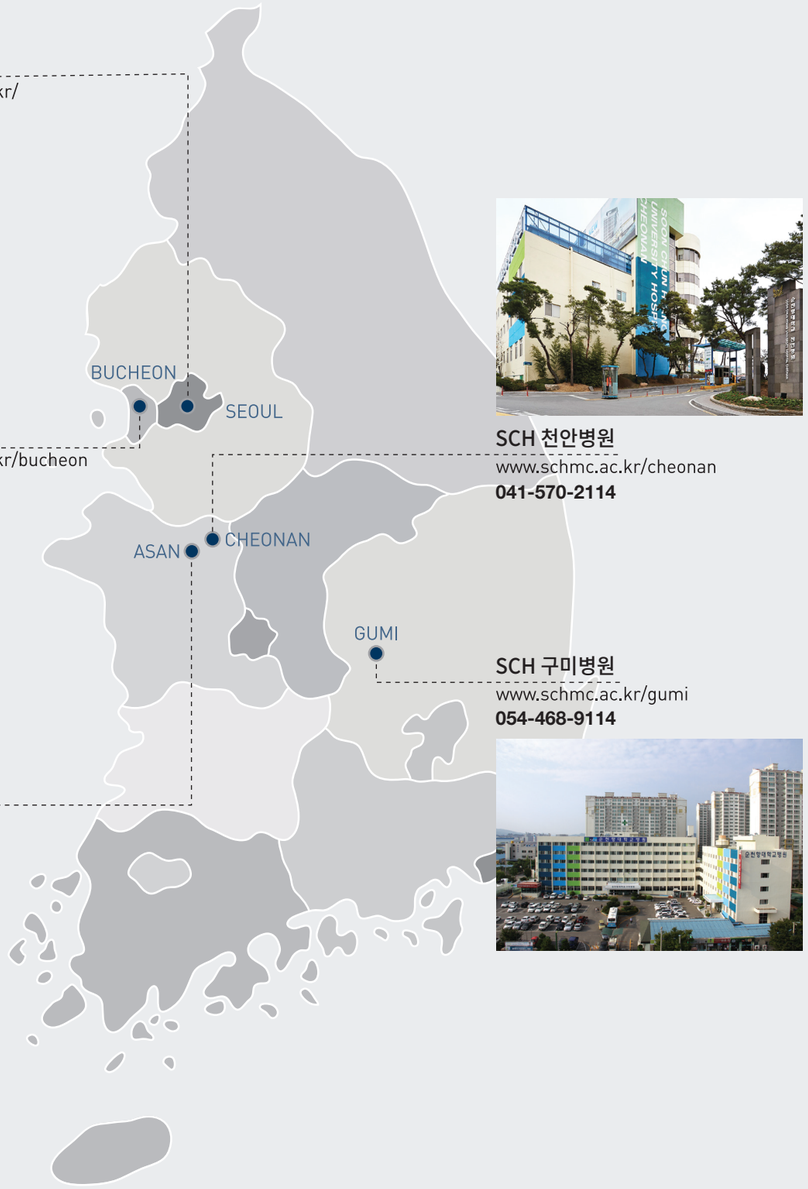
SCH NETWORK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합니다'

SCH 서울병원
www.schmc.ac.kr/
02-709-9114

SCH 부천병원
www.schmc.ac.kr/bucheon
032-621-5114

순천향대학교
www.sch.ac.kr

SCH 천안병원
www.schmc.ac.kr/cheonan
041-570-2114

SCH 구미병원
www.schmc.ac.kr/gumi
054-468-9114